



폴턴은 열 아홉살 때에 아버지를 잃었다. 아버지가 살아 계셨을 때에 폴턴은 신문이나 잡지에 글을 기고하던 아버지의 일을 자주 도와드리곤 했다. 아버지가 쓴 글을 타이프하기도 하고 때로는 자료정리, 청소까지 도맡아 하였다. 그렇게 자주 아버지의 서재를 들락거려다 보니 어디에 어떤 책이 꽂혀 있는가부터 아버지의 개인 노트의 위치까지 정확하게 알게 되었다.

아버지는 밤 늦게 까지 책상 앞에 앉아 있곤 했다. 유일하게 밤 시간 만큼은 폴턴이 서재에 들어가지 못하는 때였다. 폴턴은 가끔 새벽까지 환히 밝혀져 있는 서재를 보며 도대체 아버지가 무얼 하고 계시는지 궁금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폴턴은 아버지의 서재를 둘러 보았다.

폴턴은 반듯하게 정리되어 있는 책상에 앉아 깊은 생각에 빠졌다.

“ 아버지는 이 책상에 앉아 무슨 생각을 하셨을까?”

폴턴은 책상 서랍을 열어 보았다.

그런데 서랍 깊숙한 곳에는 한번도 보지 못한 공책 한권이 들어 있었다. 이상하게 폴턴은 가슴이 뛰기 시작했다. 마음을 가다듬고 첫장을 열었을 때 아버지가 즐겨 쓰시던 초록색의 잉크가 눈에 들어왔다. 눈 앞이 흐려지는 것을 애써 참고 다음 장을 열었다. 거기에는 어머니의 이름과 가족의 이름, 그리고 친숙한 이웃과 친구들의 이름이 차례로 적혀 있었다.

그런데 다음장엔 이제껏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이름들이 쓰여 있었다.

폴턴은 그 노트를 들고 어머니 앞으로 갔다.

“ 이 공책은 한 번도 보지 못한 것인데 어머니는 어떤 것인지 아세요?”

공책을 건넨 받은 어머니는 공책 한장 한장 열어보며 말했다.

“ 이것은 네 아버지의 기도 노트란다. 매일 밤 한 사람씩 이름을 짚어가며 조용히 기도를 올리셨단다. ”

그제서야 모든 것을 알게된 폴턴이 낯선 사람들의 이름들을 가리키며 물었다.

“ 그런데 이 분들은 누구죠?”

“ 그들은 아버지에게 상처를 준 사람들이란다. ”



교회는 하나님에 의해서만 유지되고 있을 때 가장 아름답다.

- 파스칼

교회목표 하나님만이 삶과 교회의 주인	'2002년 교회생활: "가족으로 오신 예수님" 갈보리 교회 Calvary Presbyterian Church	교회생활지침 누가 10:37 *자원함 - 섬김과 봉사 *익명성 - 명예
제 4권 8호	기초성경공부이수, 정장으로 예배, 남 이야기 금지	2002년 2월 24일
☎520-9464/021-292-1639. ☒71 Khyber Pass Rd.(The Church of the Holy Sepulchre)		

뛰는 사람



명절을 보내고 올라올 때 기차를 탔습니다. 하루전에 기차표를 사러 갔었는데 표가 다 매진되고 누군가 취소시킨 한 장 남아있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좌석 한 장과 입석표 한 장을 샀습니다.

기차가 역에 들어와 서서히 멈춰 서기도 전 저는 번개같은 속도로 기차에 뛰어 올라갔습니다. 뒤따라오던 아내가 물었습니다. "왜 그렇게 뛰세요?"

"빈자리 있으면 빨리 앉는 사람이 임하지!"

좌석표 한 장은 아내 몫이 될 게 분명하고, 서서 가야 될 사람은 남자인 제가 될 게 뻔하니 빈자리 잡으려고 뛴 것이었지요.

다행히 빈자리가 많이 있어서 한 자리 차지하고 왔습니다.

아내는 확실한 자기의 자리가 있었으니 천천히 가도 되지만, 저는 자리를 못 잡으면 4시간동안 서서가는 고달픔을 겪어야 한다는 생각이 저를 저도 모르게 뛰게 한 것입니다.

미래에 대한 확실한 보장이 있는 사람은 급할 것이 없습니다.

미래에 대한 보장이 없는 사람은 뭘 수밖에 없습니다.

미래를 볼 수 있는 사람은 여유로울 수밖에 없고

미래를 볼 줄 모르는 사람은 초조하고 급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 갈 길을 다 간 뒤에 맞이할 저 세상에 대한 대비는 잘 하셨습니까? 그곳은 영원한 쉼이 있는 곳이지만 아무나 갈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오직 한 분 예수님을 통해서만 갈 수 있습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 피를 흘리며 들판에 버려져서 있을 때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니 두 팔을 벌리고 환영하며 그를 기다리시는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그는 돌더미 속에서도 천사같이 환하고 기쁜 얼굴로 죽었습니다.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환희에 차 있었습니다. (사도행전7:59)

-갈릴리 마을에서-

주 일 예 배

영 광 송 Gloria	"Calvary"	다 같이
참회의 기도 Confession Pray		
용서의 선언 Proclaim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인 도 자
*찬 송 Hymn	23장	다 같이
*성 시 교 독 Response Reading	6(시 15편)	
*신 앙 고 백 Apostle's Creed	사 도 신 경	
교 회 소 식 Welcome & Announcements		
찬 송 Hymn	135장	다 같이
기 도 Prayer		윤형권 집사
성 경 봉 독 Scripture Reading	누가복음 3:2-8	인 도 자
어린이 시간 Sunday School		
성가대 찬양 Couple's Choir		나무십자가성가대
설 교 Sermon	"누가와와 여행" -광야의 소리! 세례요한-	김성국 목사
찬 송 Hymn	'487'장 (마지막절은 일어서서)	다 같이
*헌 금 기 도 Offer tory Prayer	(기도후 착석)	인 도 자
응 답 송 Response Song	'믿음 더욱 굳세라'	다 같이
위탁의 말씀 Encouragement		인 도 자
축 도 Benediction		김성국 목사

<2월의 예배위원>

일자	주일기도	헌금위원	Tea Time	주 일 안 내
24일	윤형권	최윤희	최재학 김영길	이기중, 정희자
3일	이광희	최재학	권용일, 김중건	사카시다, 최기향
10일	이규임	권용일	김성국, 박일영	이종길, 송정남
17일	이기중	김교섭	양경배, 윤형권	박병민, 이기중
24일	이재영	김경숙	이광희, 이재영	이재영, 김경숙
31일	이지영	김동숙	이종길, 이종운	정덕수, 김순자

'2002년 교회표어
"가족으로 오신 예수님"
<실천사항> 표현하는 사랑만이 아름답습니다
*기도하는 부모 *답살듣는 애정표현

*3주간 예배, 친교참석 이후에
등록 자격이 주어집니다
*여러교회를 다녀 보신후 결정하
셔야 바른 판단이 됩니다

주일예배 12:00 | 수요예배 7:30 pm | 금요새벽기도: 6:00 | 아동, 학생, 청년부: 주일12시

교 회 소 식

- 2002년 교회생활 표어: "가족으로 오신 예수님"
*성경: 엡5:21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 참으로 따라왔던 여름 햇벌이 어느새 선선한 바람으로 가을 준비를 끝냈습니다.
어느새 부활절을 맞는 3월이 이번 주간안에 있습니다.
- 신임집사 세미나
*처음으로 집사 직분을 받은 분들의 모임입니다.
*일시: 28일(목), 저녁 7:30, 교회
- Tea Time 시간 잠간동안 제2여선교회원들의 모임이 있습니다.
*윤형권 집사 모친께서 다니러 오셨습니다. 계시는 동안 새 손주보시는 기쁨을...
*전병주, 홍석란 전도사 가정: 건강한 4.1kg의 아들을 순산. 함께 기뻐합니다.
- 축하합니다.
*이민기념일(2월 28일): 박일영, 임혜자 집사 가정(은지):
지난 21일(목) Hole in One으로 멋진 이민기념선물을 받았습니다. 축하합니다
*결혼기념일
♡최재학, 노은숙 집사: 3월 1일, ♡윤형권, 신영화 집사: 3월 2일
산에 들에 진달래 피는 봄의 문을 하나님의 축복속에 열었던 그 날의 아름다움을
영원히 간직하세요. 늘 행~~~~복하세요.

<23월의 교회력>

	교 회 력	모임 및 행사	기 념 일
24/2	'이삭줍기'봉헌	신임집사 세미나(28일)	P&L(2)이민기념일(28)
3일	성찬식	당회(4일), 구역예배(8일)	
10일		믿음의어머니 기도회(12일)	
17일		약속의아비기도회(14일)	
24일	종려주일(고난주간)	성금요예배(29일)	학교방학(28일)
31일	부활주일	남선교회월례회	



두 종류의 대화.....

서로를 사랑하고 존중하는 다정한 대화 속에는 십자가의 형상이 납니다.

자기 욕심의 배를 내밀며 자신의 주장만 내뱉을 때 그곳에는, 상하게 하는 칼날이 나타납니다